



**趙 周 雲**  
〈金星半導體(주) 이사〉

##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다양한 참여 기회제공

**엔**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에서도 지적했듯이 현대는 정보화사회다. 구태여 그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Media)에서 쏟아지고 있는 정보의 홍수는 가히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케 하나 기실 우리들은 정보화사회의 초기단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발전의 연속성과 각 국가 및 사회가 처해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정보화사회의 시작 혹은 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이에 비례한 메시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조나 생활방식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의 현상인 것이다.

그러면 정보화사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정보화사회의 전단계인 산업사회가 낳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다양한 신적 욕구는 곧 사회의 이원화로 직결되고 이원화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창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필요성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다름아닌 컴퓨터. 이 컴퓨터를 통신과 결합, 하나의 일관된 토틸(Total)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의 처리, 축적,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구축됐고 이로 인해 뉴미디어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 뉴미디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정보사회의

핵심체며 정보화사회의 주역인 것이다.

뉴미디어는 기존의 전화망에 팩시밀리, 디지털 데이터통신 등을 망라한 종합정보통신망(ISDN)과 근거리통신망, CATV, HDTV(고품위TV) 등 폭넓은 대상을 수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뉴미디어는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 VAN(부가가치통신망)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최근 뉴미디어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분야의 정보화에서 생활분야의 정보화로 정보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토틀네트워크화로 변화 및 활동이 「고도정보화」라고 일컬어지고 이러한 「고도정보화」 및 그 영향이 총체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가 「고도정보화사회」이며 전기통신이 그 사회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는 비음성 데이터를 컴퓨터시스템과 연결시켜 통신을 하는 ISDN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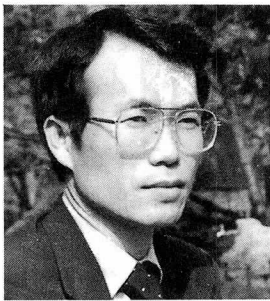
이처럼 정보통신이 극대화되면 출현되는 것이 바로 Teleport다. Teleport란 통신 및 정보처리의 복합단지로서 ISDN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사회전반의 세분화, 복합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정보의 홍수속에 각종 정보통신의 교환처리 등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종합정보통신단지인 Teleport는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고도정보화 사회를 사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가정에서는 상품구매나 은행업무 등을 가정용 단말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을 줄일 수 있다. 사무직 사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일을 처리함으로써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녀들 교육도 편리한 시간에 학습용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는 일도 드물어진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면 각종 원격진단장치를 통해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출장도 줄어든다. 웬만한 회의나 정보교환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락도 CATV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남는 시간들이 많아지므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고 혹자는 레저에 관심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보다 편리한 삶을 제공하며 여러 분야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도정보화 사회는 부산물로 우리가 예측한 또는 예측못한 새로운 부작용도 파생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를 꾸준히 지속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풍요로운 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이의 향유를 낙관해도 좋으리라.



趙 星 基

〈소설가〉

## 컴퓨터를 모르면 21세기엔 문맹자

나는 아직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고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활용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21세기의 문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제법 많은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이 기계를 사서 익숙하게 사용하기까지 꽤 고생을 하였다. 여러가지 조작 기술을 익히고 브라운관의 화면에 익숙해지기까지 멀미가 날 정도로 골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이제 이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글을 써나갈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

있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렇다.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자신들의 집필방법을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낙기계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가 나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휴전안내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워드프로세스에 익숙해지면서 컴퓨터도 배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충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을 쓸 수 후될 수 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오래전부터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문인들도 제법 있는 줄 안다. 국민학교 딸 아이가 3학